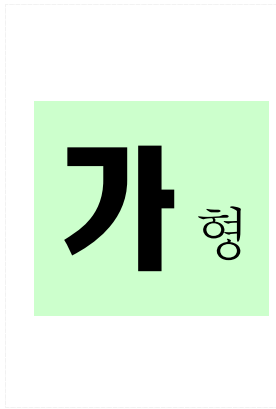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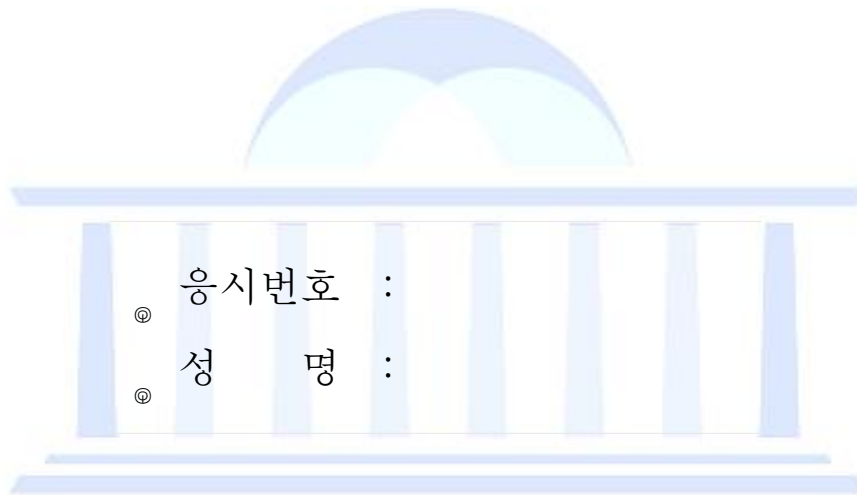


2010년도 제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제



1 교시

국어 · 헌법 · 경제학



시험시간 및 향후일정 안내

- ❖ 시험 시간 : 14 : 00 ~ 15 : 25
- ❖ 정답 가안 발표 : 2010. 8. 14(토) 20:00
- ❖ 정답 이의 제기 : 2010. 8. 16(월)~18(수) 17: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0. 8. 28(토)

국 회 사 무 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국 어

문 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와 같은 한자가 사용된 것은?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을(를)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데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
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하라면, 그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려면 당신에게 ()할 수가 없는 까닭입
니다.

- ① 의복(衣服)을 수선(修繕)하다.
- ② 군대(軍隊)에 복귀(復歸)하다.
- ③ 의견(意見)을 종합(綜合)하다.
- ④ 복안(腹案)을 준비(準備)하다.
- ⑤ 참석(參席)을 중용(中用)하다.

문 2. 다음 중 ㉠과 ㉡의 특성을 보이는 단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언어도 생명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멸(生滅)의 과정
을 겪는다. 특히 의미는 음운이나 문법구조보다 변화가 많은
데 그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논의된다. 의미 영역의
변화와 의미에 대한 평가의 변화가 그것이다. 의미 영역 변
화에는 변화 전에 비해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와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의미의 특수화, 후자의 경우를
의미의 일반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미 평가 변화는 ㉡타락
적 변화와 개선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의미
변화의 결과로, 그 단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발생한 경우이
고, 후자의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의미가 없어지거
나 새롭게 긍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① 겨레 - 영감
- ② 늑 - মানুষ라
- ③ 영감 - 장인(匠人)
- ④ 늑 - 장인(匠人)
- ⑤ 겨레 - মানুষ라

문 3. 다음 글의 내용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백남준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1960년대 독일에서 ‘동양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활동해
온 것을 고려하면 한참 늦은 편이다. 국내의 미술 평론가들은
1980년대 말까지도 “백남준의 작품은 어림에 장난이지 예술
작품이 아니다”는 식의 혹평을 공공연히 퍼부었다.

그러나 백남준은 세계 예술사에 한국인의 이름을 등재시킨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한 명의 예술가가 아니라 비디오 아트
라는 한 장르의 창시자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이 빠짐없이
그를 초청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백남준의 유작 ‘US 맵’과 ‘메가트론 매트릭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영구 전시된다. 당분간 백남준을 능가하
는 예술적 부피와 경력을 가진 한국 예술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파리와 뉴욕을 연결한 인공위성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
웰’은 백남준의 출세작으로 꼽힌다. 인류가 매스미디어에 종속
되어 1984년에 멸망할 것이라는 소설가 조지 오웰의 예언에 대
해 바로 1984년 첫 아침에, 아직도 우리는 건재하며 매스미디
어는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연대 의식을 선사하고 있다는,
(㉠)이/(가) 섞인 문안 인사를 올린 것이다.

독일에서 그는 1960년대를 뒤흔든 플럭서스 운동에 동참, 피
아노와 바이올린을 부수는 행위, 관객의 벡타이를 자르는 행
위, 객석에 소변을 보는 행위, 소머리를 전시장에 걸어 놓은 행
위 등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그는
서구 문화에 도취하거나 모방하기에 급급한 대다수 동양 유학
생들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기성 예술을 공격했으며, 예술가들이 대중문화의 침범이라며
외면하는 TV를 주목했다.

- ① 플럭서스 운동은 비디오 아트의 정신적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비디오 아트의 철학적 이념은 ‘인간화된 기술’, ‘인간화된 예술’
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백남준의 충격적 퍼포먼스에는 예술적 권위주의를 비판하
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백남준의 예술 세계는 예술과 관객의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 ⑤ ㉠에는 ‘경외’, ‘경탄’ 등의 단어를 넣을 수 있다.

문 4. 다음 (가)의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당한 곳을 (나)에서 찾으면?

(가)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網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讐辨을 暇치 못하노라.

(나)

二千萬 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刀을 懷하고, 人類通性과 時代
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日, 吾人은 進
하야 取하매 何強을 挫지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얏
다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 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
을 土昧人遇하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的 久遠
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
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 今日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 嚴
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
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 舊思
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 爲政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的 正經大
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 當初에 民族의 要求로서 出치 안이
한 兩國併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의 威壓과 差別의 不平과 統計
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績을 觀하랴. 勇明果敢으
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新
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
인가.

- ① ㉠
③ ㉢
⑤ ㉤

- ② ㉡
④ ㉣

문 5.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어휘 사용이 옳은 것은?

- ① 사막의 날씨는 식물의 성장에 적당하지 못하다.
② 순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그의 태도가 웬지 미심쩍다.
③ 우리의 인생에서 경쟁은 불가결한 것이다.
④ 외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기로 하고 나니 마음이 놓인다.
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문 6. 다음 정지용의 시 '조찬(朝餐)'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스할 피여
이윽한 후,

머흠 머흠
꿀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터
죽 죽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얇은새 같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① 경재 :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아침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군.”
② 광수 : “‘길경’,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에서 보듯 초봄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네.”
③ 제민 : “제4연은 처마 밑 섬돌에 튀는 낙수(落水)의 모습을 그린 생생한 비유지, 대단해!”
④ 하경 : “끝 연의 ‘서러운 새’는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시적 대상이야.”
⑤ 예린 : “1941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암울한 상황에 놓인 지식인의 초상화로도 보여.”

문 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딱하기 그지없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 알되,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 모르니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을(를) 찾는 것일 뿐이다.

- ① 仁義
③ 心路
⑤ 放心
② 人性
④ 道理

문 8. 다음 글은 미괄식으로 짜여진 하나의 단락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를 논리적 흐름에 맞게 재배열한 것은?

(가) 그리고 수립된 의도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 민주주의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의 민주 제도는 너무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라)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는 서구 각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리하다.
 (마) 우리의 의식 또한 확고하게 위임된 책임과 의무를 깊이 깨닫고, 민중의 뜻을 남김없이 수립하여야 한다.
 (바)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 자체에서 고루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① (나) - (다) - (바) - (가) - (라) - (마)
 ② (나) - (바) - (다) - (라) - (마) - (가)
 ③ (나) - (라) - (바) - (다) - (마) - (가)
 ④ (나) - (라) - (마) - (가) - (바) - (다)
 ⑤ (나) - (바) - (마) - (다) - (라) - (가)

문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문장은?

- ① 같은 값이면 좀더 큰것을 달라고 해라.
 ② 나는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 집이 큰지 작은지를 아는 사람은 철수 뿐이다.
 ③ 진수는 마음 가는 대로 길을 떠났지만 집을 떠난지 열흘이 지나서는 갈 곳마저 없었다.
 ④ 경진은 애 쓴만큼 돈을 받고 싶었지만 주위에서는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⑤ 김영희여사는 항상 정장을 입고 외출한다.

문 10. 다음 중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이 두 가리 ② 장작 한 바리
 ③ 오이 두 거리 ④ 조기 여덟 손
 ⑤ 북어 일곱 채

문 11. 다음은 의성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는?

의성어의 품사는 부사이고 기능상으로는 문장부사가 아니라 성분부사이다. 성분부사는 문장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의성어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형용사에 비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의 수식어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 ① 구슬들이 왁다글닥다글 부딪치며 굴러갔다.
 ② 그 여자는 철썩 남자의 뺨을 때렸다.
 ③ 철수는 따르릉 소리에 잠을 깨었다.
 ④ 순이가 목을 놓아 엉엉 울었다.
 ⑤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문 12.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등장하는 ‘화살’과 ‘시위’의 비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때 기주성을 완전히 점령한 여러 장수들이 달려와 조조에게 성 안으로 들기를 청했다. 조조가 막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 창칼을 든 군사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끌어왔다. 조조가 보니 바로 진림이었다. 전에 원소 아래에서 조조를 꾸짖는 저 유명한 격문을 쓴 적이 있어 그 죄를 크게 본 군사들이 특히 사로잡아 끌고 오는 길이었다. “그대는 전에 격문을 쓰면서 나의 죄만을 따질 것이지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까지 욕이 미치게 했는가?” 조조가 짐짓 매서운 얼굴로 물었다. 진림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화살은 시위에 울려진 이상 날아가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진림의 그 같은 대답에 조조를 둘러싸고 있던 장수들이 먼저 술렁거렸다. “저 자는 원소를 위해 승상의 조상까지 욕한 자입니다. 죽여서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장수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권했다. 그러나 조조는 진림의 글재주가 아까웠다. 잠깐 생각하다 조용히 물었다. “나는 너와 너의 글을 이번에는 내 활시위에 얹으려 한다. 원소를 위해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주겠느냐?”, “승상께서 써 주신다면 재주를 다해 받들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 조조는 그를 용서하고 종사로 삼았다.

<화살> - <시위>

- ① 격문 - 채주
 ② 원소 - 진림
 ③ 목표 - 상황
 ④ 진림 - 원소
 ⑤ 채주 - 격문

문 13. 다음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자아의 복합적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향단아 그벚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올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깔깔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만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① 자아인식－현실이탈 ② 현실이탈－자아극복
③ 자아극복－현실인식 ④ 현실인식－현실극복
⑤ 현실이탈－현실회귀

문 14. 밑줄 친 ㉠~㉤ 중 문맥상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그가 죽은 지 거의 1세기가 지나도록 소수의 ㉠전향자밖에 얻지 못했다. 뉴턴의 연구는 『프린키피아(principia)』의 출간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특히 대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프리스틀리는 산소 이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켈빈 경 역시 전자기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밖에도 그런 예는 계속된다. 다윈은 그의 『종의 기원』 마지막 부분의 유난히 깊은 통찰력이 드러나는 구절에서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 책에서 제시된 견해들이 진리임을 확신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의 견해와 정반대의 관점에서 보아 왔던 다수의 사실들로 머릿속이 꽉 채워진 노련한 자연사 학자들이 이것을 믿어 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확신을 갖고 미래를 바라본다. 편견 없이 이 문제의 양면을 모두 볼 수 있는 젊은 신진 자연사 학자들에게 기대를 건다.” 그리고 플랑크는 그의 『과학적 자서전』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서글프게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그 반대자들을 납득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자들이 결국에 가서 죽고 그것에 익숙한 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15. 다음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가. ‘ㄴ’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뎠(象舌根閉喉之形).
나. ‘ㅅ’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뎠(象舌附上齶之形).
다. ‘ㅁ’은 입의 모양을 본뎠(象口形).
라. ‘ㄷ’은 치아의 모양을 본뎠(象齒形).
마.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뎠(象喉形).

- ① 가, 다
② 다, 마
③ 가, 다, 마
④ 나, 다, 라
⑤ 나, 다, 라, 마

문 16. 다음 글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 (가)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 그믐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감쪽하게 예쁜 게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 (나) 객창한등(客窓寒燈)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 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 (중략)
- (중략) 어쨌든지, 그믐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한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 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 준다.
- (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 (라)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 버리는 초승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 마는,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 (마) 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과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마는,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 ① (가) - (라) - (마) - (나) - (다)
 ② (가) - (마)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 (마)
 ④ (가) - (마) - (라) - (나) - (다)
 ⑤ (가) - (나) - (다) - (라) - (마)

문 17. 다음 중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문장은?

- ① 당신은 이제 홀몸이 아니고 만삭의 몸이니까 조심해요.
 ② 이 아이는 큰 병원으로 빨리 후송해야 됩니다.
 ③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체하지 마라.
 ④ 이 사건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⑤ 그의 초라한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당겼다.

문 18. 다음 글의 진술 방식과 같은 것은?

고릴라의 뒷다린 듯 싹게 오금이 굽고 발끝이 밖으로 벌어진 두 다리 위에, 그 높 등 뒤로 혹은 달린 짧은 동체(胴體)가 붙어 있고, 다시 그 위로 모가지는 있는 등 마는 등, 중대가리로 박박 깎은 박통만한 큰 머리가 괴상한 얼굴을 해 가지고는 올라앉은 양은, 하릴없이 세계 풍속 사진 같은 데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탑이다. 그는 체격과 얼굴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지금 삼십이로되, 사십도 더 넘어 보인다.

- ① 영화는 스크린이라는 공간 위에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며, 연극 또한 무대라는 공간 위에 시간적으로 형상화한 예술의 한 분야이다.
- ②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움직이므로 다른 동력 장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발동기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움직이므로 발동기를 움직일 비용이 필요하다.
- ③ 날씨가 좋고 바람도 없이 더운 한낮 가까운 때, 매미의 노래는 수초 동안 계속 된다. 그리고 짧은 휴식으로 끊어진다. 다음 마디는 갑자기 시작되고 높아져, 아랫배를 빠르게 진동시키며 최고음에 이른다. 수초 동안 같은 세기를 유지한 뒤에 점차 약해져서 떨리는 소리로 변하고…….
- ④ 최 상병은 쏘아지는 총탄을 뚫고 적의 기관차를 수류탄으로 폭파시켰다. 최 상병은 기관차를 향하여 철모를 힘껏 내던졌다. 순간, 기관차 속에서 자동 화기의 연발 총성이 십여 발 엉뚱한 방향으로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엉겁결에 머리를 풀 속에 묻었다.
- ⑤ 지붕은 어떤 자재를 써서 지붕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새 지붕, 너새 지붕, 너와 지붕, 굴피 지붕, 초가 지붕, 기와 지붕으로 나뉜다. 형태에 따라서는 맞배 지붕, 팔작 지붕, 우진각 지붕, 사모 지붕, 약모 지붕…….

문 19. 다음 한자어의 독음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遊說(유세) - 破綻(과정) - 示唆(시사) - 障礙(장애)
 ② 墮落(타락) - 爆擊(폭격) - 奢侈(사치) - 懈怠(나태)
 ③ 被襲(피습) - 叱責(힐책) - 斡旋(알선) - 携帶(휴대)
 ④ 逡至(답지) - 刮目(괄목) - 歪曲(왜곡) - 洞察(통찰)
 ⑤ 標識(표지) - 賂物(뇌물) - 看倣(간고) - 捕捉(포착)

문 20. 다음은 ‘처용가(處容歌)’의 일부이다. 이에 사용된 차자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東京明期月良	식불 불괴 드래
夜入伊遊行如可	밤 드리 노니다가
⋮	⋮
本矣吾下是如馬於隱	본디 내해다마론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아사놀 엇디흐릿고

- ①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이용하였다.
- ②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표기에서 출발하였다.
- ③ 국어의 어순을 따르고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였다.
- ④ 실무적인 행정 기록은 물론 시가 등 운문에도 사용되었다.
- ⑤ ‘奪叱良乙’은 훈차(訓借)이고 ‘何如爲理古’는 음차(音借)이다.

문 21. 다음 글은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옳게 설명한 것은?

시제(時制)란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 앞뒤의 시간을 구분하는 문법 범주이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면 과거, 발화시가 사건시에 선행하면 미래라고 한다. 발화시란 화자가 문장을 발화한 시간을 뜻하고 사건시란 문장에 드러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뜻한다.

그런데 시제에는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도 있다. 절대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는 시제이고 상대시제는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제를 말한다.

— <보 기> —

나는 아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철수를 보았다.

- ① 절대시제나 상대시제 모두 현재
- ② 절대시제나 상대시제 모두 과거
- ③ 절대시제로는 현재, 상대시제로는 과거
- ④ 절대시제로는 과거, 상대시제로는 현재
- ⑤ 절대시제로는 과거, 상대시제로는 미래

문 22. 단어의 어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달’은 불교에서 음악의 신(神)인 ‘건달바’에서 유래했다.
- ② ‘멍텅구리’는 ‘뚝지’라는 물고기의 별칭에서 유래했다.
- ③ ‘가시버시’는 남편을 뜻하는 ‘가시’와 아내를 뜻하는 ‘버시’가 합쳐진 말이다.
- ④ ‘인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뜻의 ‘人生世間’이 줄어서 된 말이다.
- ⑤ ‘갈매기살’은 폐지의 횡격막(橫膈膜) 살, 즉 ‘가로막살’에서 유래했다.

문 23. 다음 중 같은 음운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로 묶이지 않은 것은?

- ① 여자(女子), 유대(紐帶), 여유(餘裕)
- ② 찰랑찰랑, 칠렁칠렁, 줄줄, 줄줄
- ③ 바느질, 소나무, 따님
- ④ 해돋이, 굳이, 맡이
- ⑤ 밥물, 섭리, 국민

문 24. 다음 글의 단어 중 같은 품사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혼례는 끝이 났다. 맥이 풀린 듯 뉘 빠진 사람처럼 송씨는 마루에 걸터앉아 있었다. 봉제 영감은 사랑에서 손님들과 술을 나누고 있었고, 봉희는 지쳐버린 신부에게 국수를 먹이면서 옷매무새를 고쳐준다.

성수는 일찍부터 보이지 않았다. 지석원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나갔다. 문둥이들도 술이 취해서 신나게 문둥이 타령을 하며 춤을 추고 갔다.

“억울합니다. 아씨, 오래오래 사이소.”

지석원은 대문 밖에서 고향을 친다.

- ① 명사 : 맥, 듯, 춤
- ② 동사 : 걸터앉아, 지쳐버린, 추고
- ③ 형용사 : 거나하게, 억울합니다.
- ④ 부사 : 일찍, 신나게, 오래오래
- ⑤ 조사 : -는, -처럼, -부터

문 25.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쓰레기에 덮이고 오염에 찌든 몸쓸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 ② 구약성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 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③ 부채비를 축소나 계열사 정리 등에 여력이 없는 재벌이 당장 공기업 쪽에 눈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 ④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정부는 이번 기름 유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국들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헌 법

문 1. 우리나라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에서 최초로 양원제를 규정한 것은 1960년 헌법이다.
- ② 건국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두고 있었다.
- ③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1962년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 ④ 1972년 헌법은 중전 헌법보다 정당국가적 경향이 약화되었다.
- ⑤ 정당운영자금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은 1980년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문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의 지도원리는 국가기관 및 국민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고,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일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 ③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일반불법 행위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영역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이므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회국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자율을 우선하며,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국가는 부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배려하며 조정한다는 기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국가의 실현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여 제한된다.
- 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문 3.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각각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하므로 탄핵소추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② 탄핵제도는 건국헌법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③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의 사유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이다.
- ④ 공무원의 사소한 범위반을 이유로 탄핵결정을 하게 되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⑤ 대통령이 헌법 등 위배행위를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4. 헌법재판소의 중국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유타이 있는 경우 재심이 허용된다.
- ②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서 한번 결정을 선고하면 그것으로 재판은 확정되고, 헌법재판소는 당해 절차에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도 없다.
- ③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기속력이 발생한다.
-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은 다른 헌법재판과 달리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개별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문 5. 외국인 갑이 한국인과 혼인할 경우 국적 취득과 관련한 진술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갑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귀화의 방법에 의한다.
 다. 갑이 임신한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갑은 자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귀화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가, 다
- ④ 가, 나, 다
- ⑤ 가

문 6. 처분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말한다.
- ② 특정 사안에 한하여 입법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최초의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 ③ 처분적 법률은 그 자체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개인 또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허용된다.
- ④ 연합뉴스사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법률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⑤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의 입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 7.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 조직인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정당은 그 법적 성격이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고소권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자이므로 제청신청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확정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8.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 운영,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 방지 등 헌법적 의의가 크므로 국회법의 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 ④ 가부동수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 ⑤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입법기가 달라지더라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문 9.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사면제도는 법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법과 나란히 다른 가치가 법의 세계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을 시정하는 기능을 한다.

나. 사면은 구체적 타당성을 낳는 장치로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다. 특별사면 시 형의 연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라.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감형과 일반으로 행하는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나, 라
- ④ 다, 라
- ⑤ 나, 다, 라

문 10.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헌법 제107조 제3항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과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헌법이 직접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든 임의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든 반드시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③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비록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⑤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문 1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내용과 합치하는 것은?

- 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뿐만 아니라,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경제적인 불이익처분도 모두 포함된다.
-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해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퇴직급여를 감액시키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아울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아닌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무조건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 ⑤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령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문 12.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국회의 구성에 관한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국회구성권이 도출되고, 국회구성권에는 국회의 정당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할 권리, 즉 ‘국회구도결정권’도 포함된다.
- ②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 ③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이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도 불가능하다.
- ④ 입법절차상의 위헌 내지 위법을 이유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평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평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헌법상 원칙으로는 의사공개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다.

문 1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근로의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지위도 가진다.

문 14. 헌법과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만을 가지므로, 한반도의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 ②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 ③ 남북기본합의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조약에 기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증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조약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문 15.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형성된 재원에 대한 후불임금수급권이므로, 재산권의 성격만을 가질 뿐이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은 지니고 있지 않다.
- ③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단순한 기대이익·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 기회)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지만,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교원의 경제적 불이익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로 인해 예외적으로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된다.
- ④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여관시설 및 여관영업을 금지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소유건물을 여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건물 소유권자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
- ⑤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기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16. 국회 의사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제50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② 의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우리 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 의사의 공개 여부에 관한 국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 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헌법

상 보장된 알 권리인 국회방청권을 침해한다.

문 17. 선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수형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되어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기초자치단체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불문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2인씩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③ 직접선거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는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선거권자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어야 할 선거결과는 개별 의원의 선출만을 의미할 뿐이지, 정당의 비례적 의석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1인 1표제를 전제로 한 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의한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평등선거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⑤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18. 현행 헌법상의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한다.
- ② 중앙당은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무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다.
- 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문 19.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 ②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 ③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의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므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처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며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다.
- ③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 ④ 음주운전여부 단속을 위한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신체의 상태에 대한 진술거부에 속하는 것이긴 하나, 음주운전여부 단속을 위한 호흡측정은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문 21. 적법절차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는 관련되지 아니하는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②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원리의 적용범위 내지 한계는 각 보안처분의 구체적 자유박탈 내지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차이가 있는바, 예컨대 처벌 또는 강제노역에 머무르는 심대한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에는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보안관찰처분과 같이 단순히 피보안관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자유제한적인 조치에는 보다 완화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공정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절차에서는 통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수거·폐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문 22. 사회계약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계약설은 국가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수호에서 국가의 존립목적을 찾는다.
- ② 사회계약설은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를 논의의 전제로 삼는다.
- ③ 홉스는 사회계약에서 복종계약을 도출하고, 복종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또한 국가에 대한 저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로크는 위임계약론에 기초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 ⑤ 루소는 국가권력이 인민의 일반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이론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문 23. 기본권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제한은 가능하다.
- ②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제한입법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입법은 위헌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 ③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 ④ 기본권제한입법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문언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최소침해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24.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③ 평등위반 여부에 대한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확인에 그친다.
- ④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를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⑤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

문 25.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공직수행에 연관이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한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한 공직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일반인의 경우와 다르게 더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까지 포함한다.
- ④ 국가나 공직제도에서 직제(職制)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하지 않는다.
- ⑤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정년제도를 신설하여 정년이 단축되도록 하는 것은 정년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이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하지 않는다.

경제학

된다.

- 문 1. 어떤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A, B 두 재화를 구매하였다. A재화의 가격이 단위당 10원, B재화의 가격이 단위당 20원이고 현재 한계대체율(A재화의 한계효용/B재화의 한계효용)은 3이다.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 (단, 모서리해(corner solution)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현재 상태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극대화되고 있다.
 - ② A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B재화의 소비를 줄여야 효용이 극대화된다.
 - ③ A재화의 소비를 줄이고 B재화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극대화된다.
 - ④ 각 재화에 지출한 돈의 마지막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A재화가 B재화에 비해 작다.
 - ⑤ 현재 소비점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는 일치한다.

- 문 2.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pi = \pi^e - 0.4(u - 4)$$

(π : 실제인플레이션, π^e : 기대인플레이션, u : 실제실업률)

<보 기>

- 가. 실제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과 동일하면 실제실업률은 4%이다.
- 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위로 평행이동한다.
- 다. 잠재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4%이다.
- 라. 실제실업률이 4%보다 크면 실제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다.
- 마. 기대인플레이션이 전기의 실제인플레이션과 동일하다고 할 때, 실제인플레이션이 전기에 비해 2%p 감소하기 위해서는 실제실업률은 8%가 되어야 한다.

-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라 ④ 마
⑤ 라, 마

- 문 3.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와 소득이 재분배된다.
- ②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메뉴비용이 발생된다.
- ③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 ④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실질화폐잔고를 줄임으로써 은행에 자주 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 ⑤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문 4. 환율결정이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보기>의 모든 지문에서 환율은 국내통화/외국통화의 비율을 의미한다)

— <보 기> —

- 가.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나.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균형환율은 하락한다.
 다. 구매력평가설에서 실제환율이 균형환율보다 높으면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게 된다.
 라. 구매력평가설이 경상수지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라면, 이자율평가설은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이자율평가설에 따르면 국내 명목이자율이 외국의 명목이자율보다 클 경우 환율은 하락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나, 마

문 5. 가격차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급 가격차별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무관하다.
 ② 소비자를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지 못하면 가격차별을 할 수 없다.
 ③ A, B 두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이윤극대화를 하려면 $MR_A = MR_B = MC$ 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MR_A : A시장에서의 한계수입, MR_B : B시장에서의 한계수입, MC : 한계비용)
 ④ 제1급 가격차별하에서 소비자잉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가격차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차별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대될 수도 있다.

문 6. 아래의 표는 가상경제의 2008년~2010년 간 생산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국민소득 통계의 기준연도는 2008년임)

연도	쌀		자동차		컴퓨터	
	수량(kg)	가격(천원)	수량(대)	가격(천원)	수량(대)	가격(천원)
2008	100	2	3,000	20,000	1,400	1,000
2009	120	4	2,800	25,000	1,500	1,050
2010	130	5	3,200	24,000	1,600	1,000

- ① 2008년의 명목GDP는 61,400,200천원이다.
 ② 2009년의 명목GDP는 2008년에 비해 약 16.6% 증가하였다.
 ③ 2009년의 GDP디플레이터는 약 124.5이다.
 ④ 2009년의 실질GDP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⑤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실질GDP가 14% 이상 증가하였다.

문 7.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보 기> —

- 가. 교육은 한계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나. 교육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신호이다.
 다. 천부적인 능력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결정된다.
 라. 높은 학력은 높은 한계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보내는 신호이다.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라
 ④ 나, 다
 ⑤ 가, 다, 라

문 8. 담배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직선이고, 담배 소비세가 없었을 때의 균형 거래량은 월 1,000갑이라고 하자. 담배 1갑당 50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담배 가격은 2,500원에서 2,900원으로 올랐고, 생산자가 받는 실제 담배 가격은 2,500원에서 2,400원으로 하락하였다. 정부가 담배 소비세 부과를 통해 얻는 세수가 40만원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담배 소비세 부과 후 균형 거래량은 월 900갑이다.
 ② 담배 소비세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감소는 32만원이다.
 ③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다.
 ④ 담배 소비세로 인한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은 5만원이다.
 ⑤ 위의 설명은 모두 틀리다.

문 9. 보몰(Baumol)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화폐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어진 모형으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모 형> —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주어진 총거래금액은 매시간 동일액수만큼 거래되며, 이들 거래는 보유한 화폐에 의해서 매개된다. k 는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를 은행에서 인출하는 거래횟수이며, 거래시마다 c 만큼 비용이 든다. 동 기간 총거래금액이 Y 로 주어진다면, 평균적인 화폐보유량은 $\frac{1}{2} \frac{Y}{k}$ 이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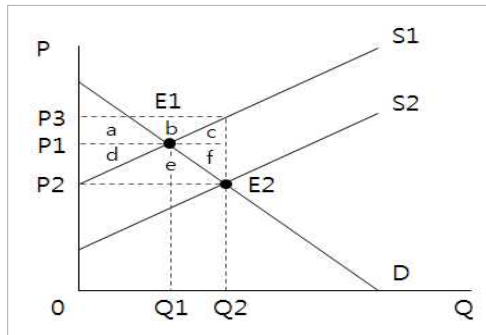
- 가. 최적 거래횟수는 은행인출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래횟수이다.
 나. c 가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다.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라. Y 가 증가할수록 최적 화폐보유량은 증가한다.

- ① 나 ② 가, 나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나, 다, 라

문 10. A라는 사람의 2001년 연봉은 6천만원이었고, 2010년에는 8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1년에는 177이었고, 2010년에는 221.25였다고 하자. A의 2010년 연봉을 2001년 가치로 계산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연봉은 4천5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감소했다.
- ② 연봉은 6천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 ③ 연봉은 6천4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 ④ 연봉은 7천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 ⑤ 연봉은 7천5백만원이며, 2001년과 2010년 동안 A의 구매력은 증가했다.

문 11. 다음 그래프는 생산자 보조금 지급과 사회후생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S1: 원래의 공급곡선, S2: 보조금 지급 이후의 공급곡선, D: 수요곡선, E1: 원래의 균형점, E2: 보조금 지급 이후의 균형점, P: 가격, Q: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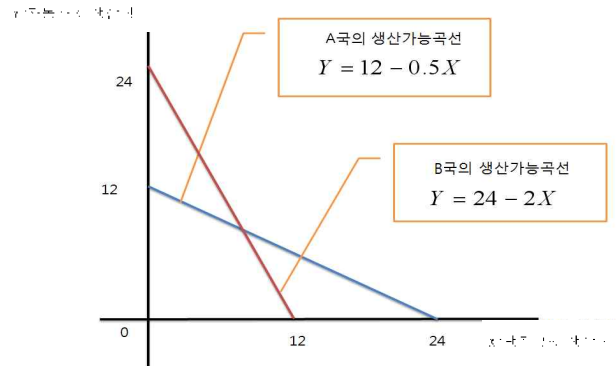


- ① 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은 P3이다.
- ②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a+b이다.
- ③ 낭비된 보조금의 크기는 c+f이다.
- ④ 보조금의 크기는 a+b+c+d+e+f이다.
- 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d+e+f이다.

문 12. 케인즈의 단순폐쇄경제모형에서 가처분소득의 함수인 민간 소비는 가처분소득이 0일 때 160, 한계소비성향이 0.6, 독립투자가 400, 정부지출이 200, 조세는 정액세만 존재하고 정부재정은 균형상태라고 가정할 때 균형국민소득은?

- ① 1,600 ② 1,700
- ③ 1,800 ④ 1,900
- ⑤ 2,000

문 13. A국과 B국은 다음과 같은 생산가능곡선을 가지고 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는 냉장고의 생산량, Y는 자동차의 생산량임)



<보 기>

- 가. A국에서 자동차 생산의 상대가격은 B국보다 크다.
- 나. 두 나라가 자유롭게 교역할 때, 냉장고 1대는 자동차 3대와 교환될 수 있다.
- 다. 교역이 발생할 때, B국은 자동차를 자국이 소비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 라. 두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각국이 소비하고 있다면 교역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② 가, 다
- ③ 나, 다 ④ 가, 라
- ⑤ 다, 라

문 14. <보기>에서 계산된 실질환율은 얼마인가?

<보 기>

외국과 국내에서 컴퓨터가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을 대표한다. 컴퓨터의 국내가격은 192만원이고 외국에서의 가격은 800달러이다. 명목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다. (실질환율은 평균적인 외국의 재화와 서비스로 표시한 평균적인 국내재화와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임)

- ① 1 ② 1/2
- ③ 2 ④ 1/4
- ⑤ 4

문 15. 다음 <모형>을 통해서 경제분석을 실시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모 형> —

이 경제에서는 정부지출과 조세 및 대외거래가 없고 중앙은행이 통화를 외생적으로 공급하며, 물가는 일정하다고 한다. (단, Y 는 소득, C 는 소비, I 는 투자, r 은 이자율, L 은 화폐수요이며, M 은 화폐공급이다. a, b, c, d, e, f 는 상수이다. $0 < b < 1$, $d < 0$, $e > 0$, $f < 0$)
 소 비 : $C = a + bY$
 투 자 : $I = c + dr$
 화폐수요 : $L = eY + fr$
 균 형 식 : $Y = C + I$, $L = M$

— <보 기> —

가. b 가 클수록 독립투자(c)의 소득증대효과가 더 커진다.
 나. d 가 0이면 독립투자(c)가 증가하여도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다. f 의 절대값이 클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라. e 가 작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⑤ 나, 라

문 16. 다음의 <모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분석한다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모 형> —

생산함수는 $Y_t = A_t K_t^{0.5} L_t^{0.5}$ (단, 아래첨자 t 는 시간을 의미하고, Y_t 는 t 기에서의 생산량, A_t 는 t 기에서의 기술수준, K_t 는 t 기에서의 자본량, L_t 는 t 기에서의 노동량임)이며,
 기술수준은 $A_t = (1+\alpha)^t A_0$ 에 의해서 결정되고, 노동량은 $L_t = (1+n)^t L_0$ 에 의해서 결정된다.(단, A_0 는 초기기술수준, L_0 는 초기노동량, α 는 기술증가율, n 은 인구증가율임)
 자본량은 t 기에서의 투자 I_t 와 감가상각률이 δ 로 주어졌을 때 $K_{t+1} = (1-\delta)K_t + I_t$ 와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매기마다 투자는 $I_t = sY_t$ (단, s 는 저축률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t 기에서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K_t/L_t) 으로 정의된다.

— <보 기> —

가. 정상상태(stationary state 또는 steady state)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s 가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나.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n 의 변화와 무관하다.
 다.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δ 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라. 정상상태에서의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은 초기 기술수준인 A_0 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나, 라
 ⑤ 다, 라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열등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그 재화를 덜 소비하게 될 것이다.
 ② 모든 기펜재(Giffen goods)는 열등재이다.
 ③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대체효과는 가격변화 전보다는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한다.
 ④ 정상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⑤ 재화가 정상재인 경우 앵겔곡선(Engel curve)은 우상향한다.

문 18.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보기>와 같다고 하자.

— <보 기> —

수요 : $Q^d = 300 - 5P$
 공급 : $Q^s = 10P$
 (Q^d : 수요량, Q^s : 공급량, P : 가격)

만약 정부가 가격상한을 15원으로 정한다면 초과수요와 가격상한으로 인한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은 각각 얼마인가?

- ① 50, 2250 ② 50, 375
 ③ 75, 375 ④ 75, 2250
 ⑤ 100, 750

문 19. 다음 <표>는 가방만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노동자 수에 따른 주당 가방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완전경쟁시장에서 가방의 개당 가격이 20,000원이라면, 가방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는가? (단, 노동자 1명의 주당 임금은 1,000,000원이며,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에 다른 비용은 없음)

<표> 노동자의 수에 따른 주당 가방 생산량

노동자의 수(명)	가방 생산량(개)
0	0
1	60
2	160
3	240
4	280
5	300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문 20. A국의 은행들은 100M의 필요지급준비금과 25M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고, 250M을 국채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예금 1,000M을 보유하고 있다. A국 국민들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든 현금을 은행의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또한, 은행들은 예금에 대한 초과지급준비율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 지급준비율은 얼마인가? ㉡ 이제 중앙은행이 A국 은행들에 5M을 대출해준다고 하자. 예금에 대한 필요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은 예전과 같다고 가정할 때, A국의 화폐공급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A국가의 통화정책은 A국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단위는 M이라고 하자)

- ① ㉠ 8%, ㉡ 60M ② ㉠ 10%, ㉡ 50M
 ③ ㉠ 12.5%, ㉡ 50M ④ ㉠ 10%, ㉡ 40M
 ⑤ ㉠ 12.5%, ㉡ 40M

문 21.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의 발달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② 최저임금제나 효율성임금, 노조 등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새케인즈학파의 이력현상에 의하면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게 되면 자연실업률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④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이다.
 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의 노동수요구성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22. 다음 <보기> 중 준화폐(near money)와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준화폐란 주식·채권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비화폐 자산이다.
 나. 준화폐의 존재는 통화수요를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유통속도는 안정시킨다.
 다. 준화폐의 존재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통제 능력을 제한한다.
 라.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가 이자율로 전환된 것과 관련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⑤ 가, 다, 라

문 23. 甲 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0억원의 예산을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지출하여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상 황>

- 신규 프로젝트인 A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10억원이며 총편익은 25억원이다.
 - B 프로젝트에는 이미 2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10억원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30억원의 총편익이 발생한다.
 - 모든 비용과 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액수이며, 다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보 기>

- 가. 10억원을 A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의 기회비용은 15억원이다.
 나. 추가로 10억원을 B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의 기회비용은 25억원이다.
 다. B 프로젝트의 매몰비용은 10억원이다.
 라. 甲 국장은 B 프로젝트에 예산 10억원을 투자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문 24. 현재의 가격수준(또는 임금수준)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인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가.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가격하한제를 실시하였다.
 나.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때 결정된 임금수준이 시장 균형임금수준보다 높았다.
 라. 한 단위 더 만들어 팔 때마다 판매자들의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이 증가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⑤ 가, 다, 라

문 25.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개월 간 동결되었던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가격의 하락
 ② 총수요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③ 실질GDP 감소와 물가 하락
 ④ 원화가치의 하락
 ⑤ 통화증가율의 감소

